



폭설, 한파 및 빙판길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

가. 폭설 시 안전 생활

♣ 폭설이 내리면

- 설해 대비용 안전 장구 (자동차 체인, 모래주머니, 삽 등)를 준비한다.
- 가능한 외출을 삼간다.
-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위험한 건물에서 대피한다.
- 우리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운다.
- 외출을 할 때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자동차를 조심하며 걷는다.
- 집 주변 빙판 길에는 모래를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.
- 항상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청취, 시청한다.
-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.

♣ 사고 예방을 위해 지킬 일

-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걷기
- 장갑을 끼고 다니기
- 뛰지 않고 천천히 걷기
- 움츠리지 말고 발끝에 힘을 주어 걷기
-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근처에서는 미끄럼을 타지 않기
- 경사가 급한 길로 다니지 않기
-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로 다니지 않기

나. 얼음판 안전사고 예방

♣ 얼음판 사고 예방을 위하여

- 가급적 얼음 위에서의 낚시, 빙상놀이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.
- 청소년이 빙상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항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감시하고 사고에 대비한다.
-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119 신고 및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.

♣ 자신이 얼음판에 빠졌을 때 탈출 방법

- 여러 집의 옷들로 인해 바로 가라앉지는 않으므로 우선 침착하게 행동
- 아이스박스, 패트병 등 부력이 발생하는 도구 이용
- 걸어 들어왔던 방향으로 몸을 돌려 탈출 준비
- 팔을 뻗어 몸이 가라앉지 않게 하고, 주머니를 뒤져 열쇠나 다른 쇠붙이를 찾아 얼음판을 찍고 몸을 엮드린 채 탈출

♣ 얼음판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

- 얼음판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에는 건식 구명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함.
- 우선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지 않게 안전한 쪽 얼음판에 몸을 의지하여 기다리게 유도함.
- 주변에서 던질 로프나 장대 또는 사다리 등 구조할 사람과 빠진 사람을 연결할 도구를 이용함.
- 부득이 구조할 사람이 얼음판에 올라야 한다면 서있는 것보다는 엎드려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음.
- 사고자를 구조하였을 경우에는 외투나 담요 등을 덮거나 불을 피우는 등 최대한 보온조치를 해야 함.
- 회복 후에는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조치함.

! 대설 · 한파 특보시 국민 행동 요령

구분	조치사항
대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라디오, TV,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 상황과 교통 상황을 확인 ○ 내 집 앞,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직접 치울 ○ 자가용 대신 지하철,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○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고립된 때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가족과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,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 등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 협조



구분	조치사항
한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 계통, 호흡기 계통, 신경 계통, 피부병 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, 유아,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주의 ○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,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, 목도리 등을 착용 ○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며, 당뇨병자,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 실시 ○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혀 부상 방지 ○ 수도 계량기 보호함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를 헌옷으로 채우고, 외부는 테이프로 막음 ○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말고,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임